

## 북경에서 폭발한 전염병은 제 1 차의 결속인가 아니면 제 2 차의 시작인가 ?

북경에서 전염병이 폭발한 후 정부소식은 혼란하고 투명하지 않은데, 진실한 정황은 도대체 어떠한가 ?



북경 신발지에서 무한 폐렴 역병이 폭발한 후 6월 13일, 대량의 경찰이 사건 발생지를 봉쇄했다.

6월 11일, 북경에서 전염병이 재차 유행하기 시작했다. 13일, 시위생 건강위원회에서는 각 단위마다 방역전시(战时)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16일에는 긴급호응에 따라 2급으로 조정했고, 18일에는 질병공제 중심에서 “북경 전염병이 이미 공제됐다”고 선포했다. 외계에서는 정부에서 속출한 정보는 아주 혼란스럽고, 투명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1** 정부에서 병독의 발원을 연어로 지목한 결과 아주 많은 수산물상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 후에는 또 연어가 “범인”이라는 현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잇달아 또 병독의 줄기서열이 유럽측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병독은 언제나 “애국”, “양민(殃民)”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환자와 접촉한 적 없지만 감염 병례가 나타났다. 6월 하순, 한쌍의 부부가 무한 폐렴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연구결과를 통해 이 부부가 확진환자의 활동범위인 해전구 70호원 공용 화장실에서 3차 감염 됐다고 판단했다. 정부측의 해석은 분명하지 않았다.

**3** 겉으로는 여유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긴장되다. 대기원매체는 북경 각 지역 내부 문건에서 중공은 북경 핑구(平谷) 구 병원과 중의원에 방창병원을 건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내부 관련자가 지단병원에서는 이미 수천개의 병상을 마련했다고 폭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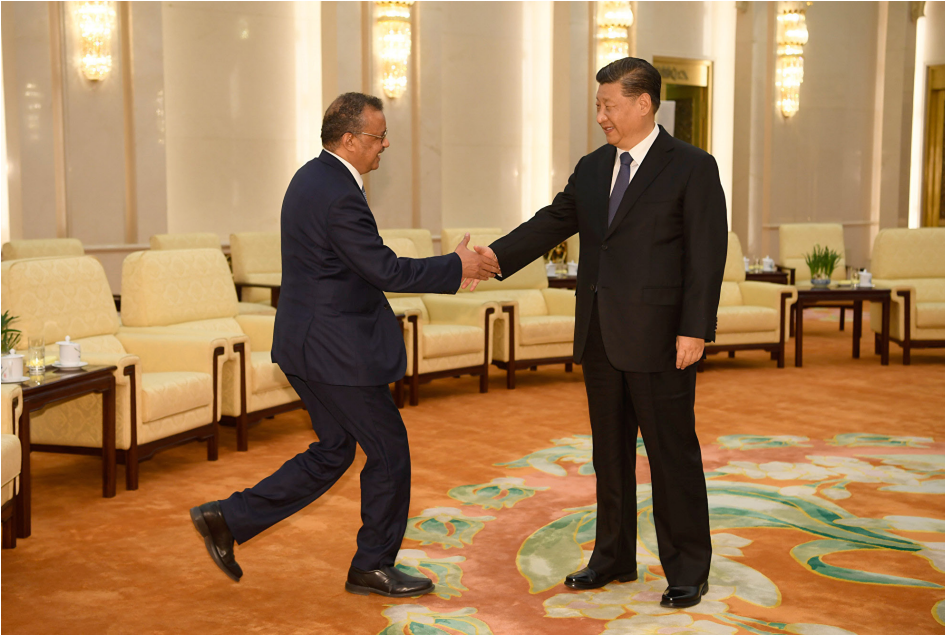
**4** 요언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요언을 반박하다. 24일, 북경 해전구 공식 위챗공중호에서 갑자기 요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근일 301 병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해전구에서 100여개 소구역 봉쇄명단이 추가됐다는 소식은 요언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었다. 네티즌들은 분분히 301 병원과 관련되는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요언이라고 반박부터 하는 행위는 뻔한 거짓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5** 온라인에서 이미 2000명이 사망했다고 전하다. 한 관련자가 폭로한데 따르면 26일 4시까지, 벌써 북경지역 확진자는 25212명이고, 사망자는 2321명이며 당국은 아직도 계속 접촉자를 체포하고 있다. 301 병원은 감염자가 80명이 넘고, 북경으로부터 기타성으로 확산된 환자의 수치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다.

27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병독(무한폐렴)은 스페인의 유행성 독감과 비슷하며, 여름에는 수그러 들다가 9월에 재차 유행되어 10월에는 정점에 이를 것이고, 제 2차 유행은 전세계에서 적어도 5천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경고했다.

글 / 이이

# 중공은 종래로 세계보건기구에 전염병 폭발을 통보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28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북경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공주석의 접견을 받았다.

《워싱턴 자유의 등불》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참의원 Michael McCaul은 6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가 가만히“(WHO)(세계보건기구) COVID-19(무한 폐렴 병독) 호응 시간표”를 갱신한 것을 발견했다. 세계보건기구 주 중국 국가대표처는 무한시 위생건강위원회 공식사이트에 발표된 무한 폐렴병례 매체 성명을 보고 정보를 얻었던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미국에서 개방한 소스 코드 플랫폼을 통해 무한에서 유행병이 폭발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중공이 병독 폭발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며, 세계보건기구는 뒤늦게 기타 방법을 통해 전염병 정보를 얻었고, 중공은 세계보건기구의 규칙을 위반했다.

미국 참의원 외교 사무위원회와 공화당이 6월중순에 발표한 무한 폐렴 대유행 기원에 관한 중기보고에서 Michael McCaul은 제기했다:“중국(중공)은 종래로 세계보건기구에

전염병 폭발을 통보하지 않았다.”중공은“정확하게 정보를 나누지 못했고,“세계를 향해 외치는 경고의 목소리를 억제하려고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보고는 인터넷에서 중문매체가 사스와 유사한 폐렴 전염병을 보도한 후 세계보건기구에 전염병이 폭발했다는 점을 의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의 마지막 날, 미국 소스 코드 플랫폼에 개방한“신형 질병 검측 계획”이라는 문장에서 무한 폐렴 폭발 관련 초기 정보를 얻었다.

보고에서의 결론은“공중에 전염병 폭발을 통보하기 몇주전에 시진핑(习近平) 중공주석은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보고에서 중공이 무한 폐렴의 전파성을 은폐하기 위해 고발자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의사는 협박을 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중공은 세계보건기구 및 국외위생전문가들의 개입을 가로막았다. Michael McCaul은 워싱턴 심사원에게 보내는 편

지에 이렇게 적었다.“현재로서의 문제는, 중공이 계속하여 그들이 세계에 경고를 했었다는 거짓선전을 할 것인지, 혹은 그들이 진실하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이 치명적인 대유행의 진실을 밝혀낼 것인지에 달렸다.”

중공은 2019년말에 이미 사람간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월 14일, 세계보건기구는 트위터에“중국(공)당국은 사람간의 전파의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만정부는 이미 전염병관련 조기경고를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했지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점을 희석시키려고 시도했으며, 따라서“제1부 보고”는 전염병 진원지인 무한에서 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조사원의 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중공더러 은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중공의 전염병대처를 칭찬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를 통해 확신할 수 있다.“만약 중공이 투철하게 책임지는 각도에서 행동을 취했다면 원래 COVID-19(무한 폐렴 병독)이 전세계에서의 대유행을 가히 방지할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미국정보계는 중공이 전염병을 가볍게 묘사하는 바람에 결국 세계를 끊임없이 오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중공의 편을 들어 역병사실을 은폐하여 역병이 전세계로 만연하는 사태를 일으켰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따라서 이미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정지할 것을 선포했다.

**신당인 사이트에서 전재(간략)**

# 미국은 중공이 “일국양제” 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

6월 30일, 중공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서방국가들은 분분히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이날은 홍콩으로 말하면 슬픈날이라고 형용했다. 북경에서 가혹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자치구를 파괴하고, 홍콩 성공의 근기를 박탈해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변하게 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민주 법치를 파괴하기에 미국은 손을 놓고 볼수만 없다고 표명했다.

폼페이오는 말했다. 중공이 홍콩 인민에게 50년 자유를 준다고 승낙했으나 23년밖에 주지 않았다. 지난 몇년간 북경은 잇따라 세계보건기구, 세계

무역조직과 연합국합의를 위반했다.

폼페이오는 또 “중공의 행위는 승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번 표명했다.”고 표시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인민과 같은편에서 북경으로부터 언론, 신문, 집회자유와 법치에 대한 공격을 대처하겠다.”고 표시했다.

미국정부는 몇주일간 연속하여 중공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만약 북경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1997년 이래 홍콩에서 줄곧 누렸던 미국 특수무역과 상업혜택 정책을 정지시킬 것을 경고했다.

6월 29일, 폼페이오는 미국정부는 앞으로 홍콩이 관제를 받

는 국방상품에 대한 수출을 정지할 것을 선포했다. 그는 “우리는 더는 홍콩과 중국 대륙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물품들이 중공의 부대수중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 중국부대의 주요목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공산당의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표시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북경에서 ‘중영 연합성명’에서의 승낙을 위반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런 행동은 중국인민이 아닌 오로지 중공정권을 겨냥하기 위해서다.”라고 표시했다.

미국 상무부장 뤼스도 홍콩이 특수혜택지위를 취소한다고 선포했다. 성명은 중공이 홍콩에 새로운 안전(법) 조치를 채용함에 따라 미국의 민간기술은 중공군대 혹은 안전부문에 전의될 위험이 증가되는 동시에 홍콩자치권을 파괴했다. 미국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허가증 면제 대우를 포함한 홍콩 특별지위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뤼스는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수여했던 수출허가증 면제 대우를 포함한 중국 대륙보다 우월한 대우 법규를 이미 중지시켰다. (대륙과의) 구별대우를 취소하는 행동도 추진하여 평가하는 중이다. 우리는 북경에 벼랑끝에서 말굽뼈를 잡아채듯이 하루빨리 홍콩과 세계인민들의 승낙이 실현될수 있게 독촉하겠다.”고 표시했다.

**신당인 사이트에서 전재 (간략)**



2020년 7월 1일, 홍콩 “7·1” 대행진에서 방폭경찰은 시민들에게 “홍콩 보안법 위반”이란 자색기를 펼쳤다. 위에는 이렇게 썼다: “이것은 경찰측에서 주는 경고다. 당신들이 지금 깃발 혹은 표어를 들거나 구호를 웨치든 혹은 기타 행위는 국가를 분열하거나 혹은 국가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홍콩 보안법’에 의해 죄행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당신들은 납치되거나 형사기소를 받을 수 있다.” (송빠롱 / 대기원)

## 제 2 차 전염병은 우리와 얼마나 먼가?

북경에서 전염병이 또다시 폭발하기전 동북지역의 전염병 상황이 심해지면서 이미 여러개 성시는 봉쇄됐다. 그리고 내몽골, 중경, 광둥 등 지역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완치환자의 재양성 발생율이 35%를 초과했다. 제 2 차 전염병은 우리와 얼마나 먼가?

자고로부터 남겨진 수많은 예언에서는 모두 인류말기의 재난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백온 태백산 비문’에서 ‘가난한 자는 일만 명 중에 천 명이 남고 부유한 자는 일만 명 중에 두셋밖에 남지 못한다’ [貧者一萬留一千, 富者一萬留二三] 는 예언을 남겼고, 한국 ‘격암유록’에서는 ‘아침에 살아 있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 열 집에 한 집이 남는다’ [朝生暮死, 十戶余一] 고 예언했으며, ‘성경 계시록’에서는 ‘인류는 사탄에 (그때의 공산당) 미혹돼 치명적인 재난을 당하며 무수한 사람이 사망하며’ [人類因受 “撒旦” (共产邪靈) 迷惑而遭滅頂之災, 死亡無數] 라고 예언했다. 이런 여러 시대,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은 사전에 약속하고 동일한 예언을 한 것으로, 오늘날 사람을 속이려고 한건 절대 아니다.

## 매번 전염병에는 ‘전염병 신 [瘟神]’이 나타났다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천재 (天災) 는 원인이 있다 ‘전염병 신’은 천명 (天界之命) 에 따라 인간의 선과 악에 근거해 전염병을 포치한다.

매 한가지 재난이 나타날때면 진짜로 “정시, 정점, 정수 (定時、定点、定數) 하는 데 상계 (上界) 에서는 이를 “3정”이라 하며 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변동할 수 있는것은 “정수”인데 사람 마음을 개변하면 정수도 개변할 수 있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한 봉성때 어떤사람은 대법 (大法) 진상을 똑똑히 알고서 사당의 당단대 조직에서 퇴출하고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념하여 무한 폐렴증상이 소실되었고 다시는 ‘전염병 신’의 사망명부 (名冊) 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변수이며 “검을 응하지 수를 응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 중공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해 대폭발을 조성하다

**회고**

《더 란셋 (柳叶刀)》 논문은 금은담병원에서 최초로 치료한 감염자 발병날자는 2019년 12월 1일로 추적할 수 있다고 가리켰다. 하지만 홍콩의 <남화 아침보> 기사가 발견한 내부 수치에서 가장 일찍 환자를 발견한 날자는 11월 17일로 적었고, 12월 17일부터 31일 사이에 확진자는 260명으로 굉장히 빠른속도로 전파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뒷따른 기록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월 17일, 무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서 실제 확진자의 1/10를 감소 시켜 단지 41명이라고 통보했다.

발병조기환자는 이미 14명 의료를 감염 시켰고, 심지어

수많은 확진자의 가족전체가 감염됐으며 현저한 사람간의 전파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12월 31일, 당지 정부는 여전히 명확하게 사람지간의 전파를 발견하지 못했고, 의료진 감염이 존재하지 않으며, “방지 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있다”고 견지했다.

12월말전, 무한의 여러 병원에서 9가지 샘플을 유전자순서결정회사로 넘겨 검측한 결과 사스 SARS와 비슷한 코로나병독임을 발견하고 바로 위생 건강위원회와 질병공제계통에 통보했다. 하지만 위생 건강위원회는 검측을 정지하고, 모든 병독 샘플을 소각하여 따라서 외부에 관련된 논문이나

수치를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요구통지를 내렸다.

1월 1일, 전염병 상황을 위챗으로 전달한 의사 8명이 공안에 의해 “요언을 선포했다”는 훈계를 받았다. 1월 6일\_10일, 무한은 “양회”를 소집했어도 전염병 통보를 하지 않았다. 18일, 백보정 사회구역은 예전 처럼 “만가연 (万家宴)”을 열었다.

1월 20일, 종난산 (钟南山) 이 사람과의 전파는 존재한다고 승인할때 반향 (返乡) 고조는 이미 시작돼 전염병은 무한에서부터 전국으로 만연됐다. 23일, 무한이 봉쇄됐다. 이때는 전염병이 발생한지 이미 2달이 되었다. **편집 / 위밍**

# 부친은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996년 나는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올해 62세이다. 나의 부친은 “노간부”이며 완전한 무신론자였다. 나는 6살 때부터 심한기침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나중에 심장, 신장이 손상되어 본지의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부친은 “나의 막내딸의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다음 신체가 좋아졌다. 나중에 나는 <전법륜 (转法轮)> 책을 들고 부친에게 넘겨주며 보라고 권하자 부친은 거절했다. 나는 “전에 부친은 나의 막내딸의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 한푼도 들지 않고 나의 병이 다 나았는데도 거절하십니까?”라고 말하자 부친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책을 받아갔다. “그래, 그래, 볼게.” 책을 다 보신 후 부친은 책은 좋으나 “미신”이 담긴 내용이 있다면서 완전히 인정할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물었다. “어떤 부분이 미신입니까?” 그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미신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밥상위에 놓인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친이 그릇안의 시점에서 (그릇안에는 부친께서 껌질을 깠 키위 2개가 있었다) 본다면 부친은 이 세계에 두개의 키위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밥상위에 서 있다면, 저는 키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물주전자 등등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친은 ‘그건 미신이야,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어느날, 부친은 그릇에서 나와 모 든걸 보고는 제가 말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또 지붕위에 서서 밖에는 높은 빌딩, 연기굴뚝, 비행기가 있다고 말하면 부친은 또 ‘그건 미신이야,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던 어느날 부친께서도 지붕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또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요.”

나는 이어서 몇가지 레제를 들었다. 그는 불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된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어떤 기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에 달렸군.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미신이라 말할 수 없고, 발전과 연구의 공간이 필요하네.” 그후부터 그는 대법을 정면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더는 미신이라 하지 않았다.

78세 되는해 부친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면서 한 젊은이가 탄 오토바이와 부딪혀 멀리 튕겨나 심하게 바닥으로 추락했다. 당시 부친의 신념이 아주 강했다: 나의 딸은 대법 (大法)을 수련한다, 대법 사부님은 그를 보호하기에 나도 보호한다. 부친은 움직일 수 있었다. 젊은이는 그를 부추겨 일으킨 후 부친은 혼자서 집으로 가셨다.

2~3일후 내가 부친 집에 갔을때 그는 가만히 나에게 알려 주셨다. “너의 사부님의 나도 보호해 주셨다.” 그는 사고를 당한 경과를 나에게 말한다음 “이번에 만약 너의 사부님의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그 젊은이를 (뒷면에 계속)

## 1 미국 국회보고: 한정을 포함한 홍콩사건에 참여한 중공관원을 제재

미국 국회 “공화당 연구 위원회”는 6월 10일에 발표한 국가 안전 책략 보고에서 말했다. “홍콩의 위기는 자유와 위권주의 지간 항쟁의 분수령이다.”

보고는 홍콩사건에 참여한 중공 관원을 제재한다. 중공정치국상무위원 한정 (韩正), 중공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 샤보룽 (夏宝龙) 과 중공 홍콩 주재 연락 판공실 주임 뤼후이닝 (骆惠宁) 등이다.

**대기원 사이트에서 전재 (간략)**

## 2 두 가족의 부동한 운명

100여년 전 미국 학자 A.E.Winship는 하나의 연구결과를 공포했다. 같은 시대의 두 가족의 번연 발전사를 비교했다: 기독교신도 아이더화즈 (1703년 출생) 가족과 무신론자 마커 유커스 (1700년 출생) 가족이다 200년후 이 두가족의 발전상황의 통계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신론 아이더화즈가족: 인구 총수 1394명, 그중 대학교 교수 100명, 변호사 70명, 법관 30명, 의사 60명, 작가 60명, 목사 300명 혹은 신학자, 의원 3명과 부총통 1명이다.

무신론 마커 유커스가족: 총 인구 903명, 그중 유망 310명, 성병환자 440명, 범죄자 (13년 이상 감옥에 감금) 130명, 살인범 7명, 술꾼 100명, 도둑 60명, 기생 190명, 상인 20명, 그중 10명은 감옥 학회에서 상업지식을 공부했다.

두팀의 수치를 보며 우리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무신론은 고상함과 행복이 아닌 추하고, 음란과 기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글 / 전앤 / 밍후이왕

(5면의 계속) 따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면, 나는 아마  
도 진정으로 부상을 당했을 거  
다. 너의 사부님께 감사드린  
다! 이일을 너의 이모(계모)  
에게 알리면 안돼.”  
얼마안돼 계모가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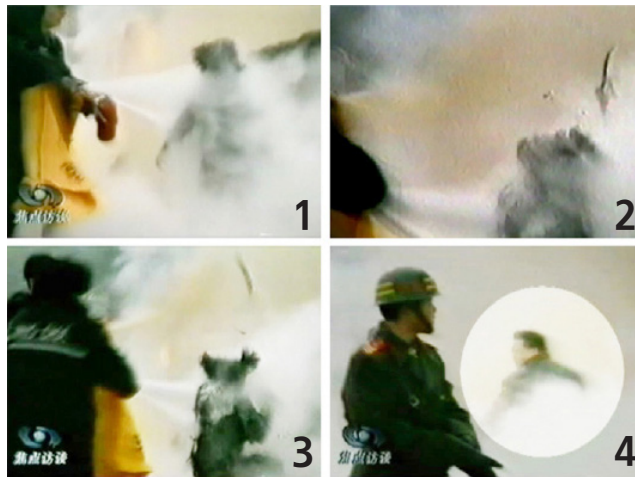
그는 나에게 물었다. “너의  
부친 엉덩이에 커다란 멍이  
두개나 있는데 그가 혹시 넘  
어진거 아닐까? 나한테는 아  
무말도 안해.” 내가 괜찮다고  
하자 그는 또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 나는 정말로 괜찮다

고 대답했다. 그는 나의 말을  
믿고 나갔다. 보아하니 이번  
부친은 크게 다칠뻔 했다. 진  
정으로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  
가족이 수익을 얻는다‘一人炼  
功全家受益’이다.

글 / 홍민 / 명후이왕

# 분신 자살 의 진상

## ① 류춘링은 불에 타 죽었는가?



**그림 1**, 류춘링 (劉春玲) 의  
몸에 붙은 불을 끌때 누군  
가 단단한 물건으로 그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 **그  
림 2-3**, 류춘링은 무의식적  
으로 두손을 들어서 머리를  
감싸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충격 받아 구불어진 흉기는  
그녀의 머리에 부딪혀 빠른  
속도로 튕겨났다. / **그림 4**,  
외투를 입은 누군가 충격을  
가하던 위치에 서 있어 힘쓰  
던 자세를 유지 하고 있었다.

2001년 그 음  
날, 천안문  
에서 세계를 뒤흔  
드는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  
다. 대량의 증  
거가 표명하는  
데 이는 강택민  
이 지시해 촬영  
한 허점이 수두  
룩한 세기 사기  
극이다.

## ② 플라스틱 병은 불에 타지 않는가?



왕진동은 분신 할 때 전신  
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리  
사이에 놓인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도리어  
완전하고 손상이 없었다. 한  
사람이 실험해 봤는데 휘발유  
가 담긴 플라스틱음료수 병은  
불을 붙인다음 5초면 나른해  
지기 시작하고, 7초면 변형  
되고, 10초면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변한다. 하지만 왕  
진동의 두다리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병은 청록색인 새  
병과 같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중공은 나쁜짓을 너무 많이 해 현재 하늘이 멀 하려고 하는데 그의 성원을 연류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중공조직에서 퇴출하는 것은 “영원히 당을 따라 가겠다”는 독서를  
해제하는 것으로써. 신은 사람의 마음만 본다. 진심으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퇴  
출할때 진명, 가명, 애명도 다 된다.

‘돌파프로그램’으로 해외 퇴당메일 [tuidang@epochtimes.com](mailto:tuidang@epochtimes.com) 에 등록해 ‘3 퇴’성명을  
발표 할 수있다.